



"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"

뜻: 다른 사람의 문제는 척척 해결해 주면서도,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자기 일 · 역설 · 한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무	당	이	↓	제	↓	굿	↓	못	하	고				
소	경	이	↓	저	↓	죽	을	↓	날	↓	모	른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무	당	이	↓	제	↓	굿	↓	못	하	고				
소	경	이	↓	저	↓	죽	을	↓	날	↓	모	른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↓		↓							
			↓		↓		↓		↓		↓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무] [당] [이] [제] [굿] [못] [하] [고] [소] [경] [이] [저] [죽] [을] [날] [모] [른] [다]

웹에서 보기

